

진도군, 향토음식점 13곳 선정... “음식관광 유도”

올해 첫... 업체에 지정증 수여 SNS홍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진도군이 '향토음식점' 13곳을 선정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사용해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올해 처음 선정했다.

진도군향토음식점은 심의위원회에서 관광객들에게 진도의 향토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을 홍보해 음식 관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하고 지난 8일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군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지정판 제작,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맛과 위생, 친절서비스 등 식당의 사후 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 선정을 통해 지역향토·특색 음식점을 발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와 위생, 친절도 향상을 통한 업소 수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향토음식점은 가운전복(전복해신탕), 광주횃집(장어탕), 궁전(소갈비뚝볶국), 신호등회관(양념계장), 운림뜨락(표고들깨갈국수), 제주촌갈비



진도군이 관내 향토음식점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진도군 제공

(울금삼겹살), 좋은자리(간재미무침), 진도밤바다(간장계장코스), 진도아리랑회센터(아리랑밥상), 한끼니(낙지볶음), 한우곰탕(듬북이 갈비탕), 회타운(생선구이모듬), 횃집서우담(회정식)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2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접수 강진군, 장비 교체 등 지원

강진군이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강진군은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강진군이 지정·관리하는 업소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진군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외식업 5개, 미용업 2개로 총 7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지정 기준은 강진군 소재 외식업,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가운데 업소의 주요 메뉴가 2개 이상이고 강진군 지역평균 가격보다 저렴해야 하며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및 현지실사 후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쓰레기 봉투 같은 소모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는 시설개선·장비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 추천서 이메일(woojong0610@korea.kr) 또는 전화(061-430-3081·3083)로 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6월 '외국인 근로자의 달' 지정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존 임직원과 화합을 위해 적극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6월 한 달을 '외국인의 달'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베트남의 날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16일 우즈베키스탄의 날, 23일 네팔의 날, 30일 태국의 날로 지정했다. 해당 날짜에는 각국의 대중 음료가 전 직원에 제공되고 있다.

사내 매체를 통해 해당 국가 근로자와 각국 문화 등을 알리고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사내방송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를 편성해 회사 생활 중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현장작업 모습을 사진에 담아 방영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7월과 8월 '한국의 날'을 운영해 식혜와 약과를 나눔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의 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해남 '또아리 블루베리' 수확

해남 블루베리 수확이 시작됐다. 해남 슈퍼푸드 '또아리 블루베리'는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김재현 기자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2024년 하반기 인증 목표

해남군이 '아이들이 신나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해남' 조성을 위해 나섰다.

군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아동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아이 신나는 도시, 아이 행복한 해남' 슬로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초중고 학생 60여명과 학부모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전문 퍼실리테이터(회이나 교육 따위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의 주재하에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아동친화영역 6개 모둠별로 진행됐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해남군이 해야 할 일'과 아동친화도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해남군 아동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단행본 6권·교양문고 4권 발간

'섬 인문학 연구' 결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원장 홍석준)은 최근 '섬 인문학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하며 6권의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섬의 변화 물결을 주목하는 학술총서 2권과 섬 인문학 연구를 대중과 소통하는 교양문고 4권이다.

학술총서 2권은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 섬의 변화와 혼돈, 적응과 도서해양학술총서 시리즈로 발간했다.

섬의 중요한 변화 물결로 연륙·연도, 기후변화, 인구감소, 바다경작, 다도해의 해체와 해역의 재편 등을 주목하고 변화의 과정을 논리한 성과물이다. 송기태 교



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매년 섬 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학계와 소통하기 위해 발간했다.

교양문고 4권은 섬 인문학 산책 1·2권, 수선화의 섬 선도, 항구도시 에콜로지 도서문화연구원의 도서해양교양문고 시리즈다.

'섬 인문학 산책' 1권·2권은 섬 인문학을 주목하는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생태학, 정책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전공 연구자들이 섬과 바다의 변화 현장을 읽어내며 대중들과 소통하는 글이다.

박성현 교수와 홍선기 교수가 연구진을 규합해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고 100편이 넘는 글을 모았다.

수선화의 섬, 선도는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선도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다.

섬사람들의 삶에 새겨진 역사, 자연, 문화를 비롯해 변화하는 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읽어낸다. 최성환 교수가 주도했다.

항구도시 에콜로지는 홍선기 교수가 세계의 섬과 항구도시를 답사하며 섬·바다·문화 연결성의 관점에서 현장을 읽어낸 글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고추 바이러스 현장진단 서비스 해남군, 발생 농가 무료진단

해남군은 병해충 및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농가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추 바이러스의 경우 약제 치료방법이 없어 조기 진단으로 감염주 제거와 관련 매개충 방제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단 키트는 5가지로 토마토반점무늬 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고추열록무늬바이러스(PepMV), 고추약한모질바이러스(PMMoV), 역병(Phyt)이 있다.

발생 증상이 역병과 유사하나 다른 병해인 풋마름병, 시들음병 진단도 함께 하고 있다. 의심 증상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바이러스 및 병해충 진단 서비스는 해남군 농업인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긴급진단이 필요할 경우 시료 채취 후 센터 방문을 통해 5분 내외로 감염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고향사랑기부 담례품 추가 선정 완도군, 7월부터 공급 예정

완도군은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담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례품목 및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담례품은 총 26개 품목(12개 공급 업체)으로 손질 전복 및 바나나 세트, 제과 세트 등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비롯해 발초 대형 서비스 할인권, 소방 안전 꾸러미, 농장 체험권 등 서비스 상품이 포함됐다.

담례품은 공급 업체와 협약 체결 후 7월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은 총 65개 품목으로 관내 37개 공급업체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최경철 기자

남북정상회담 23주년 사진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관장 김두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과 그 일대기를 담은 사진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6·15남북정상회담 23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김대중 불멸의 정치 인생을 거닐다'는 주제로 13일부터 7월14일까지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기획전시실 1층에서 열린다.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43점의 사진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생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김두복 관장은 "이번 기념 전시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사진전으로 알리고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